

강원도 고성군 군수 ➔



• 함형구 군수 약력

- 1971. 고성군 내무과 행정계
- 1977. 비상기획위원회 표창
- 1980. 국무총리 표창
- 1981. 내무부장관 표창
- 1986. 대통령 표창
- 1991. 강원도 기획관
- 1991. 국가안전기획부장 표창
- 1992. 강원도 삼척군수
- 1993. 강원도 지역경제국장
- 1994. 홍조근정훈장
- 1996. 강원도 의회사무처장
- 1998. 강원도내무국장
- 1998. 강원도 춘천시 부시장
- 2002. 대통령 표창
- 2002. 고성군수 취임

Q & A

함 · 형 · 구



함형구 고성 군수님은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신 전형적인 정통 관료의 풍모를 지니신 분이다. 대학교에서도 행정학을 전공하시고 강원도에서 삼척군수와 춘천 행정부시장을 역임하시고 고향에서 민선으로 당선되어서 혼신의 노력으로 군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다.

특히 고성군 중 장기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WTO/DDA 체제하에서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농민들의 소득수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인삼·약초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연차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계획을 뚝심있게 추진하시고 계신 정통 행정 관료이시다.

〈편집자주〉

Q 고성군이 자랑하는 유명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자랑할 거리가 많이 있는데 고성군의 자랑거리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 우리 고성군은 맑고 푸른 동해바다, 낭만이 넘치는 호수와 계곡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이며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우리고장은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해 있으며, 태



고의 신비가 간직된 순수한 자연의 보고로 금강산 관광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지역으로 통일전망대에 오르면 북녘 땅 너머 금강산의 구선봉을 볼 수 있으며, 2004년 12월 개통한 육로 길을 통해 금강산관광이 이루어지는 광경을 직접 지켜볼 수 있습니다.

고성군에 오시면 꼭 가볼곳과 꼭 먹어볼것이 있는데 고성8경과 고성8미입니다. 고성8경에는 건봉사, 천학정, 화진포, 청간정, 울산바위, 통일전망대, 송지호, 마산봉 설경이며, 고성8미는 자연산물회, 명태지리국, 도치두루치기, 토종흑돼지, 털게짬, 고성막국수, 도루묵찌개, 추어탕입니다.

특히 화진포는 경치가 좋아 별장들이 많은데 그 중 “화진포의 성”에 올라 바라보는 경치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아름다우며 “화진포해양박물관” 옥상에서의 동해바다와 화진포호수는 한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그야말로 화

진포는 산,바다, 강이 모두 있는 고성군의 대표관광지라 할 수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개최되는 축제로는 제1의 명태어장인 고성에서 풍어와 희망을 담은 “고성명태축제”,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는 연어방류체험행사인 “연어의꿈잔치”, 온가족이 함께 재첩잡이를 할수 있는 “송지호재첩잡이체험축제”, 고성주민의 화합민속축제인 “수성문화제” 옛것 그대로의 모습을 체험하는 “고성왕곡마을 민속체험 축제” 등이 있는데 축제에 직접 참가하여 고성인의 삶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은 천혜의 관광자원과 청정 자연환경을 개발과 보전의 틀속에서 체계적인 개발과 함께 관광자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Q WTO/DDA체제출범과 최근 FTA협정체결 등으로 농산물 수입개방 추세가 급속히 확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농업인들이 수입개방에 우려를 나타내고 농촌기반이 와해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으며, 고성군 입장에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인 환경하에서 군수님은 어떠한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가지고 계시며,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 농업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농업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 농업이 당면한 과제는 농산물 개방체제 하에서 경쟁력을 가진 품목을 선택하여 집중

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성군에서는 우리나라 농산물 중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인삼·약초산업 단지조성 중장기 계획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관련BT산업을 일으켜서 대단위 인삼·약초산업을 일으키자는 것입니다.

특히 고성은 강원도에서도 청정지역으로 소문난 곳이기에 청정인삼생산특구 조성에 더욱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강원도 고성 인삼이라는 특화된 Brand전략을 통해서 고부가 가치를 생산해내는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과 이를 바탕으로 우리 강점인 생명과학분야인 BT산업단지를 육성하고 첨단 R&D센터를 만들어서 유기적인 생산복합요소를 결합한 이상적인 인삼·약초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예산을 확보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대단지 조성을 위하여 민간 인삼농업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생동감 있는 농촌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아 열심히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Q 고성군이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청정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정지역을 지역사회발전과 연계해서 발전시킬수 있는 방안을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 저고성군은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접경지

로서 지금까지 개발제한에 따라 부각되고 있는 『청정성·효능성·진품성』을 토대로 차별화된 1지역 1특성화 사업을 정책적으로 심도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농촌관광과 체험등을 접목하는 그린투어리즘을 실현하기 위하여 농촌체험 테마 마을, 산촌마을, 장수마을, 으뜸농산물 시범마을 등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한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산업화단지 조성, 테라소피아, 웰빙 공원조성,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해양바이오 산업을 『생명·건강』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학관 연계를 통한 산업혁신시스템을 구축해나가므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통한 삶의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갈 것입니다.

Q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날의 경력을 간단히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A 1971년 고성군 내무과 행정계를 시작으로 강원도내의 내무행정관료를 두루 역임하였으며 강원도 삼척군수, 강원도 춘천시 정무부시장을 역임 하였고, 마지막으로는 강원도 기획관리 실장을 명예퇴직 하였으며, 고향에서 봉사하기위해서 민선 고성군수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것은 1991년도에 국가 안전기획부장의 표장을 받은것입니다.

Q 너무 딱딱한 공식적인 질문만 드린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질문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사항은 어떻게되며 어떠한 활동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A 지금도 101세되신 자당을 모시고 살며 부인과 두딸이 있습니다. 두딸은 대학교육을 다 마치고 사회생활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Q 고성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품목중에서 자랑하실 만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삼, 약초품목외에 다른 대체작물을 육성하는데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비전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 우리 군의 대표적인 농특산물의 육성사업은 산머루 재배단지 조성과 산머루주 가공 공장의 증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고행지 대체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친환경인증 농산물인 진부령 피망과 산불피해지역 대체작목인 탐동 표고버섯은 으뜸농산물로서 경쟁력을 갖추어 수 있도록 경영비절감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강원도에서는 처음 시도되고 있는 녹차 재배 신활력 사업은 녹차작목반을 설립하여 체계적인 차산업육성과 관광을 접목해 나감으로써 1,2,3차산업을 혼합한 6차산업으로 발전시켜 녹차그린투어리즘과 병행해 다양한 분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유기농법을 통한 양질 쌀개발, 라벤더팜 조성 등 웰빙시대에 부응한 친환경 관

광농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활력이 넘치는 농촌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Q 장시간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성군 인삼,약초산업 대단지 관려해서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성군 인삼·약초산업 대단지』조성은 이미 다른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클러스터를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고성군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 즉 청정지역이라는 잇점을 최대한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더 성공 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대학교를 연결하여 인삼·약초산업에 필요한 연구를 지원하고 고성군에 있는 인삼영농조합을 육성하는 작업을 병행 할 생각입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실천을 하게 되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인삼 경작지를 가진 군으로 거듭 날 것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생산자(농민), 고성군청, 영농조합 등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혼연 일체가 되어서 최선을 다하여야만 목표를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고성군 인삼·약초산업 대단지』조성사업이 고성군의 미래를 밝게 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